

# 불교계, 복지관 운영에 역점...사찰 프로그램 '미약'

## 노인포교 현황은?

21세기 세계적 과제 중 하나는 인구의 고령화다. 지구상 60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2050년이면 20억 명으로 증가해 세계 인구의 21%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불교계에도 신도층에서 확연히 고령화가 진행중이지만 이에 대한 대비는 미흡하다.

### 빠른 사회 고령화, 하지만 대비는...

세계는 이제 빠르게 고령화 사회에 접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고령화 대응 수준은 아직 미흡하다. 5월 21일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성한 '인구 고령화 경제적 영향 분석 및 고령화 대응 지수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OECD 데이터 비교가 가능한 22개 회원국의

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7월 보건복지부 민생안정과 관련자료를 살펴보면 각 종교별 복지시설 운영과 예산 추계에서 불교와 천주교, 개신교계는 각각 1조원이 넘는 운영예산을 사용했다. <표1 참조>

하지만 이러한 복지 후원이 포교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이윤권 조계종 승려복지회 사무국장은 "포교원에서 중단 소속 사찰에서 사회복지에 예산을 쏟는 만큼 포교에 효과가 있는지 질의를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이 사무국장은 "사찰과 연계성이 유지

를 통해 불교에 대해 보다 많이 알게 됐지만 신행활동을 할 의사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말했다.

### 노인전문 프로그램 태부족

2013년 포교원이 파악하고 있는 불교대학의 수는 117개에 달한다. 117개 불교대학에 다니는 신도의 수는 8000여 명. 이들은 불교대학에 적을 두고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연령으로 구별하고 있는 곳은 봉은사 연화대학이 유일하다. 봉은사 연화대학의 경우 60세 이상의 조계종 신도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표1> 종교별 복지시설 운영과 예산 추계 (자료 : 보건복지부 민생안정포)

구분	불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시설수	1,066억원	1,045억원	1,633억원	190억원
운영예산 추계	1조 1,480억원	1조 1,243억원	1조 7,603억원	2,048억원
국비보조금 추계	6,609억원	6,473억원	1조 135억원	1,179억원

불교계 복지시설 증가추세 (자료 : 조계종사회복지재단 2012 통계)

연도별	1995	1999	2006	2009	2012
시설수	95	312	389	958	1065

조계종 복지시설 운영현황 (자료 : 조계종사회복지재단 2012 통계)

계	지역	노인	아동	장애	청소년	영유아	여성가족	다문화	기타
958	67	385	71	87	47	229	11	27	20

<표2> 연령대별 불교인구 구성변화(1985~2005년) (단위 %,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구분	불교			개신교			천주교		
	1985년	1995년	2005년	1985년	1995년	2005년	1985년	1995년	2005년
전연령	19.9	23.2	22.8	16.1	19.7	18.3	4.6	6.6	10.9
0~9세	9.5	11.3	13.2	14.1	19.3	19.9	3.8	5.6	9.7
10~19세	15.0	18.3	17.7	18.1	22.5	20.4	4.4	7.2	11.7
20~29세	18.6	19.4	19.3	17.3	19.7	17.9	4.9	5.8	11.2
30~39세	25.2	24.7	19.6	17.9	20.0	17.7	5.7	7.0	9.8
40~49세	30.3	31.5	26.6	14.9	20.0	17.7	4.9	8.0	11.3
50~59세	31.5	34.7	31.7	12.8	16.7	17.8	4.3	6.3	12.0
60~69세	30.4	34.5	34.1	13.0	16.0	16.6	4.5	6.2	10.8
70세 이상	28.0	30.5	31.1	12.4	17.5	18.2	4.4	6.8	11.5

되기에 간접 포교효과는 상당할 것"이라며 "노인 요양보호제도가 시행된 이후 불교계의 복지시설 운영수가 급격히 증가했지만 불교신자 수가 비례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일선 복지관의 상황을 보아도 이러한 사실은 드러난다. 복지관의 경우 불교계가 수탁운영을 하더라도 범상 종교활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조계사에서 운영하는 서울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임희 보살은 "조계사에서 수탁운영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불교를 믿는 것은 아니다"며 자신은 무종교인이라고 밝혔다. 이 보살은 노인복지센터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기에 연령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포교가 진행된다.

서울 모 사찰이 운영하는 불교대학에 다니는 장희수(74) 보살은 "강사님이 쉽게 진행하려 하지만 어렵다"며 "함께 온 이들과 수업 이후에도 다양한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찰만의 포교 활동도 미흡하다. 60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수효사 효림원 시니어 봉사단원의 경우 10명 중 4명이 기존에 다니던 사찰에서 옮겨온 경우다.

이들은 "사찰에서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는 등 신행활동 내용이 좋아 기존에 다

니던 절에서 옮겨 왔다"고 밝혔다.

수효사 관계자는 "사찰에서는 노인들이 기도만 하게 되는 이유는 사찰 내 다양한 활동이 없거나, 접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복지 및 사찰 봉사단 구성 등을 통해 늘어나는 어르신들을 사찰 신도로 끌어들이는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고령화 사회 선호 종교는 불교

불교는 고령화 시대에 선호받는 종교로 예측되고 있다. 인구센서스에서 불교와 천주교, 개신교 3대 종교의 연령대별 인구 구성 변화를 보면 특징이 있다. 종합하면 청소년기에는 개신교, 장년기에는 천주교, 노년기에는 불교를 믿는 형국이다.

불교는 10대 이하 청소년 시절까지는 신자비율이 매우 낮아 개신교 신자비율보



사찰에서 염주를 꿰고 있는 불자어르신 모습.

### 복지투자액 3대종교 비슷

수탁운영 복지시설 종교활동 금지

나이들수록 불교 선호 현상

전법에 유리...포교전략 세워야

다 더 낫다. 그러나 20대 이후에는 신자수가 점차 증가하여, 50대 이후 연령층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3 가량이 불교 신자이다. 이런 흐름은 1985년부터 2005년까지 변함이 없다. 20년 동안 50~60대 연령층의 불교신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다.

현재의 연령계층과 10년 전 연령계층을 비교하는 코호트 분석(cohort analysis)에 의하면 불교는 50대 이후 연령층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신자확보에 우월한 위치에 있다. <표2 참조>

이는 국민들의 인식과도 일치한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011년 9월 26일부터 20일간 전국 16~69세 남녀 15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의 사회문화 및 종교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고령화 현상에 가장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예측된 종교가 불교(32.5%)로 꼽혔다. <개신교 31.8%, 천주교 28.0% 순>

유승무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는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불교에 귀의하는 사람이 늘어갈 것으로 예측된다"며 "중장년층 포교전략 강화와 함께 노년층을 중심으로 한 인력개발프로그램 등 다양한 포교 프로그램을 사찰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nbul.com



수원 모 사찰에서 연등을 만들고 있는 불자들. 대부분이 노인들이다.

현대불교 창간 19주년을 축하합니다

## 社団法人 대한불교 대원종 社団法人 정통불교 조계종

종정 정허당 신흥 총무원장 대광

- 원로위원장 정봉 부원장 청량 범왕
- 원로위원 법교 대경 지성
- 연수위원장 해도 부원장 범수
- 감찰위원 민재 부원장 범조
- 포교위원 경덕 부원장 원효
- 호법위원 범경 부원장 대안
- 불교예술위원장 소연 부원장 도이
- 비구니회장 대광 비구니부회장 연아
- 대한신종불교(승가)대학학장 신흥 부학장 민재 대광
- 사무처장 성원 중정사서실장 범수 중정큰스님소연 범수
- 부산교구총무원장 민재
- 대구교구총무원장 대각
- 포항교구총무원장 조항
- 전남광주교구총무원장 범경
- 거제교구총무원장 도연
- 경남서부교구부원장 원효
- 청년지회장 연아
- 부산법사단장 수안
- 경북교구총무원장 혜정
- 경남서부교구총무원장 경덕
- 목포교구총무원장 범수
- 인천교구총무원장 지운
- 강원교구총무원장 각오
- 대원종법사단장 청량 범왕
- 대원종전국신도회장 신우연
- 신흥사 신도회장 이정민(영암)

- 중앙종회의장 범조
- 중앙종회의원 민재 대광 연아 혜정 도연 경덕 범수
- 혜인 해도 대오 도하 혜성 대안



- ▶신규사찰 등록할 시 신속 환영합니다. 행사도 지원합니다. 무료 숙박제공, 역학(철학, 사주관상, 심리학, 풍수지리) 대원승가(불교)대학 및 불교의식 교육생 모집합니다.
- ▶지역교구 총무원장 하일 분 초빙 환영합니다.
- ▶역학 철학 풍수지리 속성 개인지도.
- ▶신규사찰 등록 환영 사찰이나 포교당 하일 분 연락바랍니다.

총무원: 경남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994 대한불교대원종 총무원 신흥사(원격사) / 한국역술학회 협회 회장 시인 철학박사 중정(총무원장) 정허당 신흥 총무원 (055)346-2909 / 사무장 010-8548-8608 / 무료전화 080-3030-5959 / 팩스 055)346-2909 / 큰스님 직 055)346-2908 / 휴대 011-869-8608 / 대한불교 대원종 홈페이지 DW108.com / E메일 asp8990@naver.com

\*본 종단은 승려중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승려계명 및 종단에서 발행한 계명증서 무효처리(예기소각처리)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불교 법안조계종

종정 운봉  
총무원장 본자

중정사서실장 도현

- 승정원장 영암 승정부원장 성암 정암 자문위원장 대현
- 총회 의장 승법 총회부원장 흥운 법신 중회 의원 도암
- 감사원장 법안 교육원장 혜초 호법원장 원광 수선원장 서연
- 의전원장 동선 기획원장 법장 비구니원장 효상 비구니부원장 설운
- 호법부원장 광월 문화부원장 설운
- 호남교구원장 도암 경북교구원장 제법 경남울산교구원장 갑태
- 총무부장 불현 교무부장 도문 재무부장 혜진 문화사회부장 현공
- 포교부장 각초 규정부장 도영

### 중도모집 안내

중도 한분한분을 가족같이 생각하는 본 종단에 법연으로 함께 하실 중도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총무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 500-1번지 / 전화 031)323-1325